

수백명 탄 이탈리아 선박 지중해서 화재

〈노르만 애틀랜틱〉

탑승객 478명 중 190명 구조...한국인은 없어

불길은 잡혔지만 바람 등 악천후로 구조 더뎠다

승객과 승무원 478명을 태우고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가던 아드리아해 해상에서 불이 난 카페리 '노르만 애틀랜틱'호에서 탑승객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AP 통신 등은 여전히 280여 명이 배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탑재 칸에서 발생한 화재로 배를 통제하지 못한 채 알바니아 해안 쪽으로 표류하는 노르만 애틀랜틱호에 탑승했던 부부가 구명정으로 통하는 하강장치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하다 바다에 떨어져 구조대가 급히 이들을 건져냈으나 남편은 숨지고 부인만 살았다고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가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승객 1명과 구조 작전을 하던 군인 1명이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해군은 카페리 '노르만 애틀랜틱'호에 탑승한 승객 422명과 승무원 56명 가운데 이날 밤까지 19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선박이나 구명정에 타지 못한 287명은 불길을 피해 선박의 맨 위층으로 대피, 추위와 공포에 떨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사고 해역에는 시속 100km의 강한 바람과 비-진눈깨비가 내리면서 구조작업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어서 아직 추가 인명피해가 있는지, 바다에 빠진 승객이 더 있는지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탑승자들을 국적별로 보면 그리스인이 26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터키 54명, 이탈리아 44명, 알바니아 22명, 독일 18명, 스위스 10명, 프랑스 9명 등이며 러시아, 오스트리아, 영국, 네덜란드 등의 국적자

478명 탑승 이탈리아 카페리 화재

478명을 태우고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가던 이탈리아 선적 카페리에서 28일 새벽 화재 발생 선상의 긴급 탈출 명령에 따라 승객들 대피 중



도 일부 포함됐다.

우리 외교부는 탑승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한국 국적 승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노르만 애틀랜틱호는 이날 새벽 그리스 남부 파트라스 항구를 출발해 오후 5시께 이탈리아 중부 항구 도시 안코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그리스의 조그만 섬 오노니

에서 33해리(61km) 떨어진 해역을 지나던 새벽 4시30분께(그리스 현지시간) 갑자기 차량 탑재 칸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장이 곧바로 승객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리고 구조 요청을 했다.

불길은 화재 발생 16시간 만인 28일 오후 8시30분 어느 정도 잡혔지만 선박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바람을 타고 구조용 헬리콥터 조종석에까지 들어가 조종사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

사고 해역에는 이탈리아 해군 소속 헬리콥터 2대와 그리스 군용 슈퍼퓨마 헬기 1대, 이탈리아 소형 비행기 등이 투입됐다. 구명정을 내릴 수 있게 상선 10대가 카페리를 둘러싸고 원을 만들어 거센 파도를 막기도 했다. 그러나 헬리콥터로는 한 번에 2명을 수송하는 게 고작이다.

현지 TV는 공포에 떠는 승객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중계했다. 카페리의 한 승객은 방송국과의 통화에서 "대피 지시에 따라 로비에 모였을 때 열기로 신발 바닥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승객과 승무원 478명을 태우고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가던 이탈리아 선적 카페리 '노르만 애틀랜틱'호에서 28일(현지시간) 화재가 발생, 최소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출동한 구조팀이 아드리아해상에서 화재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화재 경보 울리지 않고 승무원들 승객 외면했다”

그리스 언론 구조자들 인터뷰

차량 적재칸에서 발화 추정

28일(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한 이탈리아 선적 카페리 '노르만 애틀랜틱'호에서 구조된 승객들은 사고 당시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승무원들이 구조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그리스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 승객은 구조 직후 스카이TV와 통화에서 “오전 6시30분께 선실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깟는데 아무런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객실이 6층이었는데 방문을 열어보니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차 있었고 바닥은 별것없게 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경보는 매우 늦게 울렸고 승무원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며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 그들이 구명조끼

를 건네줬다”고 말했다.

그는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보트에 탄 지 15분 만에 탈출했다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보트에 탄 모두가 겁에 질렸다”고 밝혔다.

그는 “승무원들이 불을 끄려고 했으나 이미 4층까지 번졌고 우리가 탈출할 당시에는 불이 탄 바닥을 걸어나갔다”고 덧붙였다.

다른 구조자인 포티스 찬타키디스씨는 메가TV와 전화 연결에서 화재가 2~3곳에서 동시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량 타이어가 타지는 소리와 폭발음을 들었다”며 “화재 경보는 울리지 않았고 연기가 선실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화재는 선박 아래쪽의 차량 적재 칸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영화 '인터뷰' 나흘간 1500만불 흥행

온라인관람만 200만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 소재로 한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가 개봉 첫 주말 온라인에서만 1500만달러(약 165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28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과 연예전문지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소니)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4~27일 나흘간 온라인에서 '인터뷰'를 다운로드하거나 주문형비디오(VOD) 형식으로 관람한 건수가 200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나흘간 온라인 배포로 올린 수입은 1500만달러를 넘었다고 소니는 전했다. 이같은 규모의 흥행 수입은 소니가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한 영화 가운데 역대 최대라고 이 회사는 덧붙였다.

소니는 28일부터 애플의 '아이튠스 스토어'를 통해서도 '인터뷰'를 온라인 배포하기로 해 수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니는 지난 24일 구글 '플레이'와 '유투브 무비', 마이크로소프트(MS) '엑스박스 비디오', 자체 제작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인터뷰'를 공개, 회당 5.99달러(약 6600원)에 보거나 14.99달러(약 1만6500원)에 다운로드할 수 있게 했다.

또 온라인 배포와 별도로 미국 지역 331개 독립 영화관에서 25일부터 이 영화를 상영, 개봉 첫날인 성탄절 100만 달러(약 11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연합뉴스

을 최고 시장파괴자에 '우버'·'알리바바'

영파이낸셜타임즈 선정

기존 시장 흔든 새로운 개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택시서비스 업체 '우버'와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29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꼽은 올해 최고의 시장파괴자(disrupter)로 선정됐다. FT는 새로운 발상과 신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시장 판도를 뒤엎고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업체를 시장파괴자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20여 개 업체를 선정했다. 그 결과 기술 부문에서는 알리바바와 함께 사오미, 에어리우, 틸더가 선정됐고 운송 부문에서는 우버와 더불어 테슬라, 포드 F-150, 엠브라에르가 뽑혔다. 또 소매 부문에서는 알디, 저스트 잇, 라자다닷컴, 인디언 이커머스가, 은행 부문에서는 밤 다이아몬드, 랜딩 클럽, 아이매치에티브가, 미디어 부문에서는 넷플릭스, 사운드클라우드가 각각 선정됐다. FT는 우버의 경우 생긴지 5년밖에 안된 신생기업이지만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로 전 세계 51개국 230개 이상 도시에

서 택시업계에 대변혁을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최근에는 우버가 서비스 중인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각국 행정 당국과 실정법 위반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다. 현재 우버의 기업가치는 400억 달러(약 44조 원)에 달하며 우버는 내년 수익 목표를 100억 달러(약 11조 원)로 잡고 있다고 FT는 소개했다.

지난 9월 뉴욕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한 알리바바는 중국 내에서 기존의 전자상거래 시장뿐 아니라 '코이디다처'라는 택시 호출 앱과 온라인투자펀드 '우에바오' 등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FT로부터 시장파괴자란 평가를 받았다.

코이디다처는 올해 중국 택시 앱 시장의 53.6%를 점유했으며 우에바오는 온라인 투자를 통해 5340억 위안(약 94조 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FT는 리보 금리 조작 혐의로 바클레이즈 회장을 물러났다가 화려하게 복귀한 밤 다이아몬드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아프리카에서는 투자를 받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아프리카 전문 투자펀드인 '아틀라스 마라'를 성공시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GOChina 중국 전문 입학상담
www.gochina.co.kr
 저급전파주세요!!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 233-9582 (중)구오팔리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료,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상생,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일디자이너,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8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술산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지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1명 810 56
 ☎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